

지역 소식통

지역자활센터 운영 재개

정읍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지역자활사업을 11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시는 사업 특성상 농작물 수확과 계약이행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3개 사업단을 제외한 7개 사업단에 대해 지난 2월 28일부터 휴관했다.

지난 8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지역자활센터는 이용자의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방역자침 준수 교육 등 직원 근태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코로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단계에서 조심스럽게 시작하기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전기자동차 구매 최대 1720만원 지원키로

부안군은 오는 18일부터 22일 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승용)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무공해 전기자동차 15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우선지원 6대, 일반지원 9대로 구분해 승용은 최대 1720만원, 초소형은 최대 6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전일까지 만 1년 이상 연속해 부안군에 거주한 군민 법인 단체이며 우선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족,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이다.

지원신청은 자동차 대리점에서 가능하며 신청일이 사업에 산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내에 차량 미 출고 시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구매를 원하는 군민은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에 청년활력센터 조성

행안부 청년활력·자립지원사업 공모 최종 선정

국비 5억 투입... 청년친화도시 실현 마중물 기대

부안군이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창조적인 지역활동을 펼치는 청년들의 교류를 지원하는 청년활력센터가 구축될 전망이다.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청년 활력 및 자립지원사업' 공모에 높아도 되고! 살아도 되고! 해도 되는 되는데요 부안! 부안청년센터 「카멜레온(이하 되는데요 부안!)」이 청년 활력센터 조성사업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활력센터 조성사업 분야는 전국에서 19개 도시가 공모를 신청했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부안광역시의 함께 기초지자체는 부안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전에 선정된 '되는데요 부안!'은 '부안은 청년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청년은 부안에서 삶을 만들어간다'는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국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안형 청년정책 발굴 제안, 우포코디아 연계 타 지역 청년교류, 청년청소년 멘토멘티 나도 선생님, 청년들의 색깔있는 놀이축제 등을 위한 부안청년연합체 구성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또 청년창업 기초교육 및 청년문화 콘텐츠교육 등 청년행복 코칭사업 추진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등 타 사업 연계를 추진해 청년창업에 특화된 사업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안청년센터 기반 구축과 부안청년 거버넌스 구축, 부안청년행복코칭사업, 청색축제 시범 추진, 청년게스트하우스 조성, 부안청년협동조합 운영, 타 지역 청년교류 및 지구촌장터 운영, 세계 청년 유튜브 제작

개최 등이 오는 2025년까지 3단계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부안청년센터는 부안군 부안을 군청길 7-4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며 청년활동 플랫폼으로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해 청년친화도시 부안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군은 스마트창업 보육센터 운영 및 스마트플랫폼 100 등 농촌 신활력 사업 연계사업과 매화풍류 예술공방 및 매화풍류 문화저장소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사업, 청년문화광장 조성 및 수소에너지하우스 청년활동방 운영 등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연계사업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복안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단 한명의 청년도 방치하지 않고 청년과 지역민이 함께 살아가는 청년친화도시 부안을 실현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부안에서 행복하게 지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교육생 160여명과 함께하는 '식초문화 아카데미 입교식'이 열렸다

"누구나 손쉽게 만들고 즐기는 식초"

고창 식초문화아카데미 개강 161명 접수... 타지역 관심 커

전 고창군이 생활 속에서 식초를 만들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 개설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교육생 160여명과 함께하는 '식초문화 아카데미 입교식'이 열렸다. 고창 식초문화 아카데미는 온 군민이 식초를 즐기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2월부터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총 161명이 접수했다. 고창 뿐만 아니라 식초교육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서울, 충남 보령 등 타지역의 농업인들도 함께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11월까지 각 과정별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식초 아카데미는 ▲기본반(식초입문, 전통주, 누룩 만들기, 식초 이용한 비누만들기 등) ▲응용반(호산준 빛기, 와인제조, 곡물식초 전용누룩 실습, 발사믹 식초 만들기 등) ▲상품화반(상품화과정과 브랜딩 마케팅, 포장디자인 개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교육생의 목표달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11월까지 각 과정별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식초 아카데미는 ▲기본반(식초입문, 전통주, 누룩 만들기, 식초 이용한 비누만들기 등) ▲응용반(호산준 빛기, 와인제조, 곡물식초 전용누룩 실습, 발사믹 식초 만들기 등) ▲상품화반(상품화과정과 브랜딩 마케팅, 포장디자인 개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교육생의 목표달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고창=김영식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농장 유입 원천차단

정읍시, 농장방역 강화... 울타리 설치비용 60% 지원

정읍시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양돈농장 유입을 막기 위해 지역 내 농장방역을 강화한다.

시가 봄철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영농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립과 차량에 의해 바이러스가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농장방역을 강화하며 양돈농가 바이러스 유입 원천 차단에 나선 것이다. 관련해 시는 지역 내 양돈농가에 울타

리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울타리 설치비용의 60%를 보조하고 4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현황으로 119농가 중 완료 72농가·미흡 21농가·미설치 26농가로 파악되고 있다. 미설치 26농가 중 16농가는 울타리 지원사업을 통해 울타리를 설치 중에 있다. 설치는 되어있으나 부분적으로 미흡 21농가는 보완토록 독려하고 남은 미설치 농가는 예산을 확보해 진

나가 울타리 설치로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농기센터 이원욱 소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철저한 차단·방역만이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며 "각 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방역 기본수칙으로 ▲농장 내·외부 철저한 청소 및 소독 ▲차량소독기 및 대인소독기 설치 ▲농장울타리 설치 등을 설명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본격화

정읍시의 마을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주도형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마을에 활력이 넘치고 있다.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이사장 이봉열)는 지난 11일부터 입입면 신등마을과 월천마을, 감곡면 순촌마을을 시작으로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환경을 정비하고 경관을 조성해 침체되고

있는 농촌 마을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 신청을 통해 입입면 신등마을과 월천마을, 감곡면 순촌마을, 산외면 원정마을, 상교동 조원마을 등 5개 마을이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 중 입입면 월천마을은 마을포지션을 특색있게 제작하고 마을 입구 당산나무 주변을 정리하고 꽃을 식재했다.



신등마을은 마을 입구에 적재된 폐기물을 철거하고 현 산밭과 가방 등 폐자재를 활용해 마을 화단을 조성했다.(사진)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